

법난사 연구 동남아까지 확대

'승가' 12호 해외 법난사 다각 조명

최근 법난(法難)에 대한 연구가 지역별·시대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석림> 제28집의 기획은 단 '법난의 역사'를 통해 본 불교인의 과제'가 한국의 법난을 불교사적인 입장에서 시대별(조선조~현대)로 조명한 것이라면, 최근 <승가> 제12호에 실린 5편의 논문들은 법난사를 한국을 비롯, 인도 중국 동남아지역까지 확대 조명하고 있어 법난사 연구의 영역을 한층 더 넓혀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시대·동남아 법난사를 다 양하게 조명하고 있다. 「인도불교 법난사」를 통해 김용환교수는 인도불교의 법난을 "인도사회에서의 불교교단이나 포교하는 사립이 받은 박해, 특히 위정자에 의한 불

지 범주로 인도불교의 법난 유형을 분석했다. 부처님 입멸 후 1백년이 경과후 제기된 상좌부파와 대승부 사이의 갈등으로 야기된 '이념 한화법난' '스키' 원전 2세기에 푸사비트라가 브라만교의 제사의를 앞세워 야기한 '상징 소격화(頌禱化)'의 법난 △5세기 말에 마하라 쿨라에 의한 천천투교 경향의

국의 통치목적에 부합하여 이용 가치가 있으면 그 존속을 허용하고 부흥시켰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현실판처를 버렸다"고 밝혔다. 중국불교의 국가적인 대법난으로는 △북위(北魏) 태무제 태평건국 2년(441)의 폐불사건 △북주(北周) 무제 건국 3년(574)의 폐불사건 △당나라 무종 회화 5년(845)의 폐불사건 △오대(五代)시대 후주(後周) 세종 헌덕 2년(955)

의 폐불사건 등 소위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이 있다. 「동남아 불교 법난사」를 기고한 송위지씨는 남아시아 지역 특히, 스리랑카의 예를 들면서 법난으로 불리우는 불교의 박해를 정의하고, 스리랑카 법난의 내용을 불교를 박해한 종교에 따라 구별해 서술했다. 특히 계시종교(이슬람교, 유대교, 개신교)에 의한 박해의 경우는 국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김재경 기자)

인도 일곱번 대수난 겪어

국가종속물로 전락

스리랑카 개신교 등에 억눌려

법난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불교사적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 깊이있는 다양한 '법난 연구'는 개혁시대로 나아가는 한국불교의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사회관 정립 및 진정한 불교 자주화를 위한 전제가 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번 <승가>지에는 김용환교수(충북대 국민윤리교육과), 정휘욱씨(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종법스님(종승대 불교학과 교수), 해봉스님(지족상), 송위지씨(외대 철학과 강사)가 인도·중국·조선시대·일

교탄압등에 의해 불법(佛法)이 수난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법난은 달마(dharma)로 표현되는 진실에 의해 성스러운 힘을 새롭게 조정하고, 집단 구성원을 한데 묶어주는 결속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사회변동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인도의 불교교리 자체의 문제와 함께 문화적 변동을 함께 고려하면서 크게 7가

요점을 대륙 수용함에 의해 야기된 '북한 동지회의 법난' △권력 남용과 법난 △조지 관료화 법난 △삼베르카르의 개혁에 의한 신불교운동으로 나타난 '해석 일탈화(變遷化) 현상' 등이 그것. 정휘욱씨는 "중국 불교 법난사,를 통해 중국불교의 최대 특징인 '국가불교의 형성'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불교정책은 역사적으로 불교가

"대·소승 사상의 공통성을 찾자"

2월26일 방콕서 열린 한태불교대회서 주장



보광스님



정병조교수

한·태불교협회(회장 법집)는 지난달 26일 태국 방콕 불다본톤 국제센터에서 제1회 한·태국제불교대회를 열고 「불교를 통한 양국의 교류방안」(보광스님·동국대 교수)과 「남방선과 북방선」(동국대 정병조교수)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금까지 대승불교 우위론만 주장한 잘못된 교과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지스님이 대신 읽은 「남방선 북방선」을 통해 정병조교수는, "남방선과 북방선이 체득했던 '깨달음의 경지'는 철저히 주관적"이라고 전제하고, "남·북방선의 개관적 형식의 대비는 무의미하며, 오히

려 내면의 진실이 교류할 수 있는 '사상의 공통분모'를 찾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남방선과 북방선은 한 뿌리에서 태어난 두개의 나뭇가지와 같다"며, "우리가 부각시켜야 할 점은 양자의 차별성이 아니라 동일성"이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남·북방선이 서로가 표방하는 '무심(無心)의 심(心)'에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선의의 경쟁이 시도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양국 불교의 발전, 나아가 보편적 진리로서의 불교가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친일승려 행적조명

'친일문제연구' 2집발간

이날 세미나에서 보광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오늘날 불교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남북방 불교는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여 세계인류를 부처님의 법으로 귀의시켜 모든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로운 삶의 지표를 열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집에는 이종욱 허영호스님 등 불교인을 비롯, 법조 문학·예술 등의 분야에서 친일 행위를 한 33인의 행적을 실었다.

2천만 불자 앞장서서 우리 농촌 살리자!

-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라 우리의 농촌은 황폐화되고 있다.
- 우리 국민이 수입 농산물 대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국민정신을 발휘할 때, 우리 농민도 적절한 가격에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농가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농민과 농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1,600년 전부터 국가의 위기나 비상시에는 항상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우리 불자들이 앞장 서왔던 것을 상기할 수 있다.
- 우리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2천만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수입 농산물 대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한다는 것은, 불교의 자비정신과 중생구제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데 그 뜻이 있다.



시골 참기름

우리의 시골 맛과 향 出現

우리 농촌 살리기 위해... 드디어, 한가람 食品流通(株) 出帆하다

스님! 지금까지 매일 매일 시장보러 다니기가 번거로우셨죠? 佛子가정의 주부님!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그날 그날 장보기가 걱정되셨죠? 이제 한시름 놓으십시오! 전화 한 통화로 한가람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취급품목
- 야채류, 나물류, 과일류
 - 전통한과 •제수용품
 - 참기름 •주곡류
 - 사찰 행사시 아와 도시락, 아외뷔페

입금을 받습니다
 •영업: ○명(신입)·경력사원·고졸·대졸·운전면허소지자)·기획: ○명(신입)·경력사원·농대졸·3년 경력)·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제출기한: 1995년 3월 10일까지·제출처: 서울 종로구 건지동 110-40 청송B/D 2층 한가람식품유류(주) 총무과

부모가 만나는 의미는

스님 법문 중에 부와 자는 원래 불이 아니라고 하셨고 불이 아닌 부와 자가 만나는 만나야 하겠는데 백지 한장 차이로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백지 한장이란 무엇이든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요. (부산 동래구 은천3동·이부승)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날 때 영원한 근본의 마음과 과거에 지은 업이 동화된 업식과 육신, 이 세가지가 삼합이 되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근본의 마음, 즉 나를 진화시키고 이끌어 가는 마음, 그 마음이라 함도 이름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내기 이전인데 그게 부인 셈이고, 마음내는 것은 자인 것입니다. 정기로 말하면 정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자이고, 전류는 부인데 부와 자는 항상 가설이 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올리지만 하면 불이 켜집니다. 정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전류가 본래 불이 아니지요. 전구가 없어도 아

치리지 왜 학교에 보내십니까?

마음공부중 부상 입었는데
 저는 당분간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마음공부를 하면서부터 인솔원도 안 맞고 악을 먹지않고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환희심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경북 포항시 괴동 장문순)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 그런데 한가지 미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공부는 죽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양면으로 다 놓는 것입니다. 살려고만 애를 쓴다면 저들이 기울어집니다. 생·사 양면을 다 놓아야 빛이 번쩍 일어납니다. 죽는 것은 두렵고 살려고만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도리를 파악할 수도 없구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 믿으려면 양면을 다 놓는 작업을 해 보세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대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가람선원 대행스님께 물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기도원에서 암을 치료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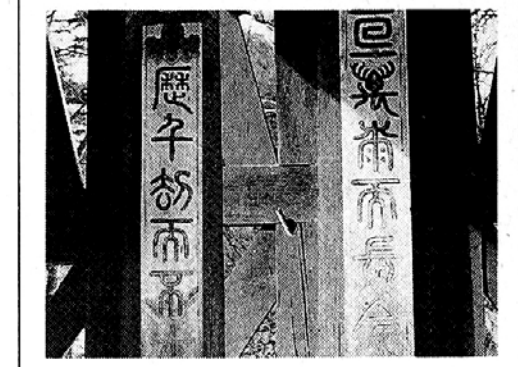
어떤 기도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나 백혈병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면 절대자가 치료해준다고 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김숙현)

그런 식이라면 밖으로 매달리는 노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럴 만지 않으니 부와 자는 불이 아니라 불이 되어 상봉을 못하는 것입니다. 상봉하려거든 본래 불이 아님을 믿으세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백지 한장이지 은산할백이기도 합니다.

불자보다 인간이 되고 싶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지 말고 법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불교를 믿는 것도 좋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술 풀 때는 술과하고 기쁨 때는 기뻐하며 그렇게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절에 가지 않더라도 공부는 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인식)

이 세상 사람인데 어떻게 생활과 불교가 따로따로일 수 있겠습니까. '불교'라 할 때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며 '교'라고 하면 말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과 불법이 다르지 않고 생활이 그대로 불입니다. 그런 이치를 알아 가는게 공부이지 생활 따로 공부 따로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디에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에 안 나가고 공부하지 않는데 그러면 님의 자녀들을 제 손으로 가르



해인사 공현당의 주련.

해인사

<공현당>
 閑情且向貧中覺
 (한중차향빈중역)
 妙用還從樂處生
 (묘용환종락처생)
 鐘聲洗盡淨塵念
 (종성세진부진염)
 滴水流通淨俗緣
 (간수류소반속연)
 路上白雲隨意摩
 (노상백운수의마)
 鏡中清影任吾寬
 (경중청영임우교)
 一塵不到菩提地
 (일진부도보리지)
 萬善同歸般若門
 (만선동귀반야문)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로운 마음으로 일관된 산골 수행 생활과 일체 분별심을 버린 곳의 지혜로움이 명료한 언어로 풀이되고 있다. 나처(樂處)만 가난을 즐기는 초월한 마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며 반연(絆緣)이란

산사의 여유로움 쾌활히 읊어

한정연 반드시 가난 가운데서 찾을 일. 모용 역시 나처에서 나온다. 산소리에 헛된 망상 다 씻고 산골 물로 세속에 얽힌 반연 띄워 보낸다. 노상의 백운을 헤치고(뜻대로 만지며) 경중 청영 임의로 들여다 본다. 티끌 하나도 보리지 닿지 않아서 '만선'이 모두 반야문으로 돌아오네. 해설 산사에서 기도하고 영달하며 사는 기쁨을 쾌활하게 읊고 있다. 부족함이 없고 넉넉해 여유



시골 참기름

우리의 시골 맛과 향 出現

우리 농촌 살리기 위해... 드디어, 한가람 食品流通(株) 出帆하다